

빛 때문에...장례비 남기고 광주 모녀 '안타까운 죽음'

4년 전에 세상 떠난 부친의 수억원대 빚 떠안으며 힘겨운 삶 유서와 아파트 관리비도 남겨...주위 민폐 안끼치려 애쓴 듯

수억원대 빚에 시달리던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도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와 장례비를 남겼다.

1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연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여·81)·B(여·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는 모녀로 이 아파트 17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고 바로 아래에 의자가 놓여 있었

다.

집안에서는 편지봉투 하나가 발견됐다. 봉투에는 자필로 쓰여진 3장의 유서와 이별달 아파트 관리비 40만원이 들어있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떠난다. 신세만 지고 떠난다. 장례를 잘 치러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안방 서랍에 모친이 평소 틈틈이 모아놓은 돈 800만원이 있으니 이를 장례비로 사용해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경찰은 외부 침입흔적이 없는 점과 유서 등을 토대로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녀는 3억~5억원 가량의 빚에 고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이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빚이다. 이후부터 A씨와 B씨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살고 있는 A씨의 남동생 C씨도 빚을 갚는데 일부 돈을 보냈다.

특히 공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회사를 통해 1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녀가 살고 있는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

이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A씨가 매달 100만원 가량 연금을 수령했고 B씨가 직장생활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모녀는 주변에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쓴 것으로 주변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모녀가 살고있던 집 우체통은 밀린 통지서 없이 깨끗했고 관리비도 연체된 적 없었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설명이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모녀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경제적인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모녀가 살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문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은행나무 열매 냄새 원천봉쇄
광주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16일 오전 풍향동 일대의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내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조부 탈영기록에 병역명문이 탈락 가족 명예회복

광주지법 "군무이탈로 보기 힘들다"

할아버지의 '탈영(배미)' 기록 때문에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떨어진 가족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광주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지난 2004년 병무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에서 3대(代)가 모두 현역 군인으로 만기전역한 가문을 선정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을 비롯해 할아버지인 B씨, 아버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쳤으니 병역명문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병무청은 지난해 B씨의 병적기록표에서 탈영사실이 확인됐으며 선정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병역명문가 선정규정에는 탈영의 경우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을 구분해 군무이탈의 경우에만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군무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1959년 7월 18일 부산시 남구 김만동에 있는 소속부대에서 경남 김해의 공병교육대로 파견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부산에는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군무이탈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B씨가 3일만에 공병 교육대에 스스로 도착해 병적기록표는 1959년 7월 19일 탈영(배미) 1959년 7월 22일 탈귀(자진)으로 기록된 점을 보면 파견된 곳에 배정되었음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배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 탈영과는 다르다"고 봤다. 부대 배치후 미복귀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군무이탈에 해당하는 탈영을 했다면 상응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육군 기록정보관의 사실확인결과에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서 "B씨가 자진복귀 후 1주일만에 병장으로 진급하고 불이익 없이 만기 제대했다는 점을 보면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3명 징역형 선고

광주서 천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9억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범인 B(60)씨는 징역 2년을 받았고, C(65)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여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 동생이 법원 경매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1구좌에 710만 원을 투자하면 30~45일 후 약 100만원의 배당금이 투자금과 함께 지급된다"고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동생이 다른 곳으로 발령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법원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을 줬다"며 사가 200만원 상당의 금 7냥을 전달받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A씨의 동생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경매사업도 존재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투자금으로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기 범행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대다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처분사유 기재 미흡 어린이집 폐쇄조치는 위법

행정 처분서에 처분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쇄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광주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폐쇄 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2020년 11월에 보건복지부 합동 조사에서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1월 어린이집 시설 폐쇄 처분과 함께 1200여만원의 보조

금 반환처분을 했다.

A씨는 광산구가 시설폐쇄 처분을 하면서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산구의 처분서에 위반사항과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A씨가 행정구체 절차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면서 "반환해야 할 보조금 산정 또한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 내용과 달라 광산구는 반환보조금 산정내역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등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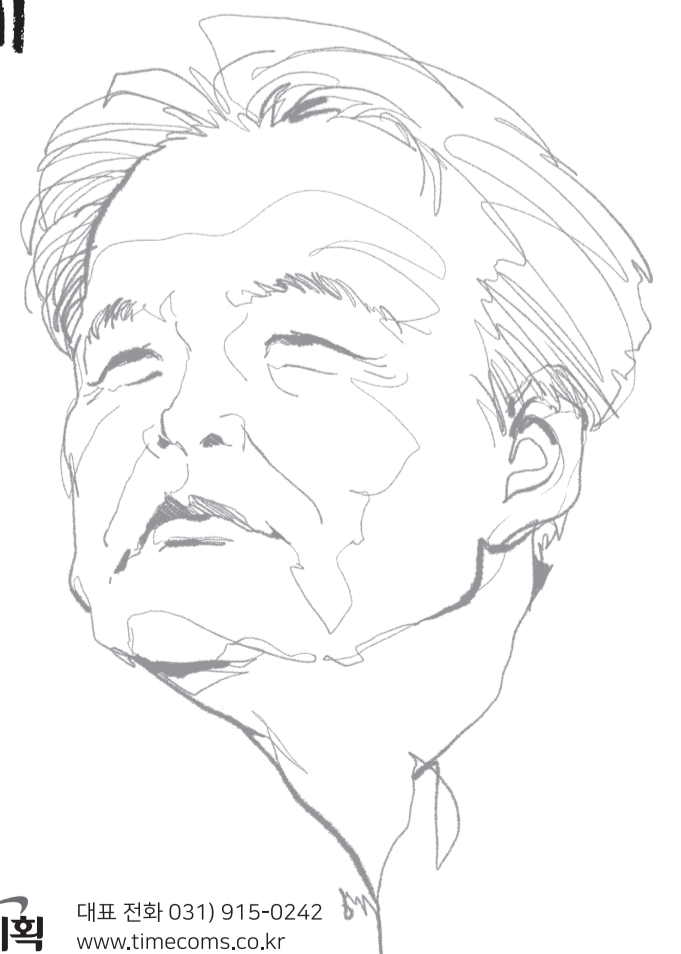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등근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